

## 『무알라까트』에 나타난 ‘죽음의 운명’ 모티프 연구\*

김 능 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1. 서론

‘시(詩)는 아랍인의 디완(ديوان 보고寶庫)’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아랍시가 아랍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음을 뜻한다. 『무알라까트』의 시를 포함하는 자힐리아(이슬람 이전) 시는 이슬람 출현 이전 시대의 독특한 사회상, 풍속도, 의식(意識), 사고방식 등 간직함으로써 이슬람 시대와는 다른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자힐리아 시에서는 부족 중심주의, 다신교, 음주, 도박 등 이슬람 시대에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주제어: 아랍시, 무알라까트, 자힐리아(이슬람 이전) 시대, 죽음의 운명, 삶의 잔흔  
서두, 사생관, 부족주의  
Arabic poetry, the Mu‘allaqāt, Jāhiliyah(pre-Islamic) era, mortal fate of man,  
atlāl(أطلال traces of staying) introduction, view on life and death, tribalism

금지되거나 이슬람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관습이나 남자다움과 명예 중시 등 당시의 특이한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자힐리야 시 중에는 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 같은 실제 역사상의 사건을 다룬 작품들도 있다.

‘무알라까트’(المعلقات)는 자힐리야 시대 7인<sup>1)</sup>의 시인이 지은 7편의 시 작품을 모아놓은 선집의 명칭이다.<sup>2)</sup> 정설은 없지만 아랍 학계의 중론에 따르면 『무알라까트』는 이슬람 시대에 들어와 우마이야 시대 말기와 압바스 시대 초기에 걸쳐 활약한 페르시아 계의 음유시인 함마드 알라위야(حماد الراوية, 694~772)<sup>3)</sup>에 의해 집성,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자힐리야 시대에 아랍시는 이미 완벽한 아랍어 어휘와 표현 및 시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무알라까트』의 시들은 이슬람 이전 시대에 발달한 아랍 정형 장시(長詩)인 까시다(قصيدة)의 전형을 보여주며 이슬람 도래

1) 본고의 2장을 참조할 것.

2) 이 시선(詩選)에 수록된, 각 시편은 ‘무알라까’(معلقة)로 불리우며, ‘무알라까트’는 단수형 단어 ‘무알라까’의 복수형으로 다시 말해 ‘(여러) 무알라까들’이라는 뜻이다. 본문 이하에서 『무알라까트』는 시선, 곧 작품집을 가리키고 『』없이 ‘무알라까트’라고 하면 ‘그 시선 안의 시편들’ 곧 ‘무알라까들’을 가리킨다.

3) 마알리(비아랍계 무슬림) 출신의 아랍 언문 학자이며 구전가, 시인. 자힐리야 시인들의 작품과 이야기에 관한 방대한 양의 지식을 구전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로, ‘알라위 야구전의 대가(大家)’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명석하여 구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를 조작하는 데 능했다는 이야기나 그가 학자가 되기 전에 도적떼의 일원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그에 관해서는 김능우, 『자힐리야 시의 전승(傳承)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3, 314-317쪽 참조.

4) 논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시선집의 편찬 기원에 대해 언급한 자는 『무알라까트』 해설서를 집필했던 알나흐하스(أبو جعفر النحاس, 950년 사망)인 것으로 보이며, 그는 함마드 알라위야가 무알라까트를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ياسوت الحموي معجم الأدياء، عبد الملك مرتاض) السبع معلقات، p. 51에서 재인용)

또한 알나흐하스는 “(당대) 사람들은 시를 보존하는 일을 등한시했다. 함마드 알라위야는 이 7편의 시를 모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는 ‘이것이 그 유명한 시들(마쉬후라트 المشهورات)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السبع معلقات، عبد الملك مرتاض) شرح القصائد التسع المشهورات، النحاس، p. 52에서 재인용)

이전 다신교 시대에 살았던 아랍인의 원시적 생명력이 가득한 인생관과 삶의 다양한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랍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알라까트는 아랍인에게 전해진 자힐리야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시로, 그 특유의 형식과 어휘, 표현들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진실되게 증거하는 자료이다.

무알라까트의 우수성과 관련해 이븐 라쉬끄(ابن رشيق القيرواني)가 저서 『키타브 알움다』(كتاب العمدة)에서 언급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고대 시인들과 현재 시인들의 관계의 예는 마치 두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만든다. 그런 뒤 다른 한 사람이 그것에 무늬를 내고 장식을 한다. 만일 그 장식이 매끄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꾸밈이 드러나고, 만일 그 건물이 거칠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능력이 나타난다.”(حنا الفخوري, 1986: 152) 이 말은 무알라까트가 아랍시의 근원이자 초석이 될 만큼 우수하다는 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알라까트는 건물의 기초와 구조 등 본질적인 것에 해당하고, 이후의 시들은 건물의 장식처럼 부차적인 것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앞선 것, 본질적인 것으로 바로 고대시인 무알라까트가 바로 그것이다. 즉 무알라까트야말로 이슬람 시대에 들어와 약 1400년간 긴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아랍인에게 애송되어오는 아랍시의 근간이자 기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알라까트』는 아랍문학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번역·주해·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문헌이다. 논자는 『무알라까트』의 7편 시를 주해하면서 그 시들이 이슬람 시대의 시와는 명백하게 차이나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이라는 유일신교의 유무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슬람 시대에 시인들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유일신의 존재를 우선시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은 일단 이슬람 교리나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슬람은 인간의 정신과 현실 세

계 모든 영역에서 지침으로 작용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슬림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선행을 권장하고 내세를 기약하며 심적인 안정감을 가졌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부재했던 자힐리야 시대에 아랍인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무알라카트』를 주해하면서 논자는 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보았다. 그것은 무알라카트가 자힐리야 시대에 가장 탁월한 시로 평가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최고의 작품이라면 응당, 시인 자신의 개성이나 예술적 특성 등 외에도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나 정서를 담아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자힐리야 시대에 시인들은 부족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었기에 그들의 사고와 언사는 곧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를 반영, 대변하거나 한발 더 앞서갔음에 틀림없다.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면서도 결코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은 개별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 주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민족의 사상적 선각자들은 죽음에 대해 종교나 철학, 문학을 통해 자신들이 감지하거나 숙고·성찰한 바를 말하려 하였다. 논자는 『무알라카트』의 작품 7편을 읽으면서 그 모든 시의 서두에서부터 밀려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자힐리야 아랍인들의 고뇌를 감지했으며, 그 시인들이 직접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말하거나 이미지를 통해 표출하려는 것에서 그들은 분명 자힐리야 시대 대다수의 아랍인들이 죽음에 대해 지녔던 사고의 핵심을 말하려 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알라카트』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관련된 생각, 이미지, 주제 등의 모티프를 다루려 한다. 분석할 자료는 『무알라카트』의 7편 시 원문으로, 구체적으로는 알자우자니의 『무알라카트』 해설서 원문이다.<sup>5)</sup>

5) 『무알라카트』의 해설서로 정평 나 있는 것은 알자우자니(أبو عبد الله الحسين بن أحمد بن الحسين الزوزني)의 해설서 원문이다.

## 2. 각 작품 및 유형에서의 ‘삶과 죽음’

### 2.1. 각 작품 분석

『무알라카트』의 7편 모든 작품을 묶어 삶과 죽음을 고찰하기에 앞서 각 작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각 작품에서 이와 관련된 모티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각 시인의 생애가 생사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므를 까이스(امرؤ القيس بن حجر بن عمرو الكندي, 서기 6세기 초 출생)의 무알라카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 시가 지어진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키타 국 왕인 부친이 전쟁에서 죽고 나라가 패망한 이후 많은 고뇌를 하며 살았다. 부친의 피살과 가문의 몰락 이후 그의 시에서는 불운한 삶과 가혹한 운명으로 인한 고뇌가 발견된다(الطاهر, 1993: 239~240). 그러나 그의 무알라카는 가문의 몰락 이전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sup>6)</sup> 최고 신분의 젊은 왕자로서 풍족한 삶을 누렸기에 그 시기에 지어진 이 작품에서 생사 문제로 인한 고뇌는 나타나지 않는다(김능우a, 2004: 48). 실제로 논자가 보기에 그의 무알라카는, ‘잔흔(殘痕) 서두’<sup>7)</sup>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젊음의 활력이 충일하다.

1093년 사망), 알티브리지(الخطيب ابو زكريا يحيى بن علي التبريزي, 1109년 사망), 알안바리(يكر محمد بن القاسم الأنباري أبو محمد أبي, 939년 사망)의 것이다. 논자는 본 연구에서 알자우자니의 해설서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학자의 해설서도 참고하였다.

- 6) 이븐 꾸타이바의 구전에 따르면, 이므를 까이스는 사촌 여동생 파피마에게 시를 쓴 것으로 인해 그의 부친에 의해 쫓겨났다. 이므를 까이스는 파피마를 사랑했으며, ‘다라 줄줄’ 연못에서 두 사람이 만난 일은 그의 무알라카에 묘사(10-12행)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구전 내용의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능우, 『이슬람 이전 시대의 시성 이므를 카이스의 무알라카』, 『아랍시의 세계』, 36-37쪽;

عامر الحلواني، شعرية المعلقة: امرؤ القيس- لبيد بن ربيعة - زهير بن أبي سلمى،  
كلية الآداب والعلوم الإنسانية بصفافس، وحدة البحث في المناهج التأويلية، ص 54-55.

그의 무알라까는 6개의 소주제로 구분된다. 각각은 ‘옛 집터를 지나가며 애인을 회상함’(1-6행), ‘지난날 여러 여인과 사귄 경험을 말하는 시인의 연애담’(7-40행), ‘사랑의 고뇌’(41-47행), ‘시인의 관대함과 부족을 위한 봉사’(48-51행), ‘말 묘사, 시인의 기마술과 사냥’(52-69행), ‘비 내리는 장면’(70-81행)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알라까트』의 여러 작품들에서도 공통되는 - 뒤에서 논할 - 잔흔 서두이다. 이 서두에서 그는 한때 사람들로 변성했던 곳이 지금은 황폐화된 것, 지난날 사랑을 나누었지만 너무도 괴로웠고 결국엔 이별로 끝났던 것에 대해 말한다. 본문의 나머지는 모두 생명력이 가득한 장면들이다. 멋지고 힘센 말을 타고 들소 무리를 사냥하는 장면, 재물을 아끼지 않고 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폭우와 급류의 역동적 장면은 모두 현재에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모티프들로 여겨진다.

어릴 적 부친이 사망하여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야 했고 친척으로부터 외면 당한 따라파 이븐 알압드(طرفة بن العبد, 543~569)는 성격이 빛나기 유혹에 빠져 지냈으며 부족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고, 동생의 많은 낙타를 잃어버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리고 시적 재능을 인정받아 히라국에 가서 궁에서 지냈지만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채 왕을 조롱한 일로 인해 왕명에 의해 26세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물욕에 집착하지 않고 소신대로 사는 것을 중시하였다. 짧은 생애였지만 따라파는 험난한 삶을 살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었기에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에 대해 깊은 사념에 잠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무알라까는 이 점을 확인해줄 단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파의 무알라까를 보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단명한 청년답지 않게 생사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한 흔적이 관찰된다. 그의 무알라까는 5개

7) 이에 관해서는 본고 3장의 ‘잔흔 서두’ 부분을 참조할 것.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옛 집터를 지나가며 애인을 회상함’(1-10행), ‘암낙타를 타고 여행함, 낙타 묘사’(11-44행),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토로, 인생관(사생관)’(45-67행), ‘사촌 말리크의 무관심’(68-79행), ‘시인 자신에 대한 과시’(80-103행)이다. 역시 여느 작품처럼 잔흔 서두가 나오며, 특이한 점은 낙타와 관련된 행이 많아서 34개 행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낙타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강인한 낙타라는 소재로써 낙타내려는 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동생의 낙타를 잃어버려 사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했던 일에 대한 불만, 재물에 대한 무관심, 유한한 삶에 대한 수궁의 자세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그가 범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한한 인생을 살더라도, 낙타처럼 강하게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태도가 그의 무알라카에서 드러나며, 이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걸하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실제 모습과도 부합한다.

주하이르 이븐 아비 술마(زهير بن أبي سلمى بن ربيعة، 약 530~627)는 백 살 가까이 장수하고 높은 인격과 더불어 지식과 판단력에서 두드러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 한편을 지음에도 1년 간 공을 들였고(أبو العباس, 1995: 26) 사고의 폭과 깊이에서 당대에 출중한 시인이었다. 이런 점은 그의 무알라카를 포함한 시 작품들에서 자힐리아 시대 최고의 지성과 인생 연륜을 지닌 시인의 사생관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의 무알라카를 보면, 논자의 예상처럼 풍부한 인생 경험과 성찰의 결과에서 우러나온 면이 돋보인다. 그의 시는 5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것은 ‘옛 집터를 지나가며 그것을 묘사, 떠나가던 여인들’(1~15행), ‘부족 간 전쟁 해결에 공헌한 두 인물 칭송’(16-24행), ‘두브얀 부족에게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경고, 전쟁 재발 우려’(25-36행), ‘부족 군대 묘사’(37-45행), ‘격언과 충고’(46-62행)이다. 그의 무알라카에서 주목할 점은 전쟁을 반대하고 억제하려는 지식인으로서 주하이르의 면모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성찰, 참다운 인생 추구하고 관련된 미덕이나 격언이다. 이런 점들은 그가 인생 연륜을 지닌 이성적인 사람이며, 자기 부족과 상대방 부족의 안녕을 위하는 마음을 지닌 당대에 보기 드문 평화주의자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무알라까에 나타난, 죽음의 숙명을 인식한 그의 사생관은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의 무알라까에서는 알라(Allāh), 최후심판일의 징벌 등 유일신교의 일면이 관찰되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당시 기독교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죽음의 운명에 직면할 인간들이 서로 전쟁으로 짧은 삶을 단축하기보다는 생명을 중시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것을 강조한다. 논자는 이러한 주하이르의 사생관은 머지 않아 모든 부족을 화합시킬 새로운 종교, 곧 이슬람의 등장을 예고하는, 자힐리아 말기에 있음직했을 사회 변화의 한 징조일 것으로 생각된다.

라비드 이븐 라비아(أبو عقيل لبيد بن ربيعة بن مالك بن جعفر بن كلاب العامري)도 백 살 가까이 장수해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고상한 인품을 지닌 시인이라는 점에서 주하이르와 유사한 점이 있다. 라비드는 경건함과 인애의 정신을 갖춘 자로, ‘동풍이 불기만 하면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서약할(ديوان لبيد بن ربيعة العامري, p. 10; الأنباري, p. 514) 정도로 타인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인생을 성찰하면서 인간의 삶은 소멸되며 인간의 소유물은 일시적인 보관물이어서 언젠가는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인간 저마다의 정해진 몫이기에 재난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인내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그의 시에는 근심 어린 정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비관적 사고가 깃들여 있다(حنا الفاخوري, 1986: 281). 그의 형제 아르바드의 불운한 사망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점

8) 한나 알파쿠리(حنا الفاخوري)에 따르면 라비드의 생몰은 560~661년.

حنا الفاخوري، الجامع في تاريخ الأدب العربي- الأدب القديم، ص 280.



과, 그가 629년경 이슬람 신자가 되었다는 점은 그의 무알라카에서 사생관을 살펴볼 때 참고할 사항이다.

그의 무알라카는 크게 4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것은 ‘옛 집터를 지나가며 애인을 추억함’(1-19행), ‘낙타여행’(20-24행), ‘야생 짐승(당나귀, 암컷 들소)의 생존 과정’(25-56행), ‘시인 자신에 대한 자랑, 그의 부족 사람들의 미덕’(57-88행)이다. 이 무알라카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 같은 인류의 보편 문제와 부족 내 상부상조의 정신, 개인의 관대함과 남자다운 미덕 등에 관한 언급과 더불어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시인의 성찰이 드러나 있다. 죽음의 운명을 직시하면서도 현실의 삶을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생애 동안 최고의 미덕을 갖추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가 보인다. 이 시에서도 주하이르의 무알라카에서처럼 알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아므르 이븐 쿨숨(أبو عبد عمرو بن كلثوم التغلبي, 600년경 사망)은 강한 자부심과 불굴의 정신, 걱정을 지닌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지키고 타 부족을 침략하는 등 전쟁에서 많은 기간을 보냈던 점에 비추어 매우 활력이 넘쳤던 인물로 보인다. 40년 간 지속된 알바수스 전쟁 이후 상대방 부족인 바크르 족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타글립 부족의 대표로 파견될 정도로 뛰어난 언변을 갖추었던 시인이었다. 모친을 조롱한 히라 국의 아므르 이븐 힌드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죽였다는 일화로 보아 아므르는 무엇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무알라카는 크게 3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것은 ‘술을 마시며 인간의 운명을 성찰함’(1-8행), ‘애인과의 이별’(9-21행), ‘시인의 부족에 대한 자랑, 아므르 왕에 대한 비난’(22-103행)이다. 무엇보다 이 시는 바크르 족과의 갈등을 둘러싼 여러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방 부족에 대한 비난과 적개심, 아므르 왕의 불공평한 결정

에 대한 불만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 시인의 격한 성격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므르는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성찰한다. 서두에서 술을 마시며 인간의 생사를 고민하는 장면은 주목할 만 하다. 술을 마시며 운명에 얽매인 인간 존재에 대해 고뇌하는 것은 압바스 시대에 캄리야트(주시酒詩, wine poems)로 유명한 아부 누와스의 고뇌를 연상시킨다.

안타라 이븐 샷타드(عترة بن شداد, 615년경 사망)는 『무알라카트』의 다른 시인들과 출생·성장 배경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생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흑인 노예 신분이어서 부족 내에서 차별을 받는 가운데 고뇌로 가득한 채 짧은 시절을 보냈다. 또한 사촌인 아블라를 사랑하면서도 노예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려웠던 자였다. 그만큼 안타라는 짧은 시절에 일반 자유인 신분의 사람들이 겪는 것 - 가령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 노력하는 모습 같은 것 - 과는 다른 차원의, 더 큰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족을 위해 헌신하고 무인으로서 강한 면모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신분상의 약점을 극복하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즉 노예로 지내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그는 자유인으로 인정받고 아블라와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공을 세우려 했으며, 이 점과 관련된 고뇌에 찬 모습은 그의 시에 나타난다.

그의 무알라카는 5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것은 ‘옛 집터를 지나가며 애인을 떠올림’(1-22행), ‘튼튼한 암낙타 묘사’(23-33행), ‘전사로서의 자신을 자랑함’(34-56행), ‘아블라에게 구애함’(57-61행), ‘전투 참가’(62-75행)이다. 이 시는 형식상 여러 소주제를 포함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블라를 향한 안타라의 사랑의 감정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 즉, 잔흔 서두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들은 안타라가 자신의 용맹과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아블라를 향한 구애의 과정으로 보인다. 안타라에게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극복과 결혼

이다. 이를 위해 그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해 공을 세움으로써 부족 내에서 자신의 확고한 위상을 얻고 애인에게 뒤흔치게 청혼하려 한다. 그에게 사랑의 성취는 삶의 목표이며 그가 애타게 바라는 자유인 신분의 상징이다. 그 목표를 향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용맹스러운 안타 라이지만 그 또한, 무알라카에서 보듯, 전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이처럼 안타라가 당면한 삶의 현실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 강제된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위협을 감지하지만,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안타라는 생각했을 것이다.

알하리스 이븐 힐리자(الحارث بن حلزة, 6세기경 생존)는 바크르 부족 내 귀족층 지도자이자 현자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으며, 다만 시인 아므르 이븐 쿨숨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 오고 있다. 즉 전술했듯이 타글립 족과 바크르족 간의 분쟁에서 시인 아므르는 타글립 족의 대표 시인으로 나섰고, 바크르 족의 대표로는 알하리스가 나섰다. 당시 중재를 맡은 히라 국의 왕 아므르 이븐 힌드 왕은 양편의 말을 들은 뒤 알하리스 측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시인 아므르와는 달리 알하리스는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 알하리스는 지적인 성격에 풍부한 인생경험과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으며, 자부심이 커서 ‘알하리스 이븐 힐리자보다 더 자부심이 크다’(الزوزني, 1989: 260~261)라는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였다.

그의 무알라카는 전술한 일화, 즉 아므르 왕의 중재 사건 과정에서 왕 앞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크게 3개의 부분을 포함한다. 그것은 ‘애인을 만났던 지난날을 회상함’(1-5행), ‘낙타를 타고 일을 하거나 즐겁’(6-14행), ‘시인의 부족에 대한 자랑, 아므르 왕 칭송, 타글립 족에 대한 비난’(15-82행)이다. 여기서 세 번째 주제 부분은 부족 간 분쟁과 갈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인은 아므르 왕에 대한 칭송과 왕에 대한 시인 부족의 충성과 전쟁에서의 탁월함을 제시함으로써 부족 간 경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한다. 알하리스의 무알라까는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인 면에 있음에 비추어 세 번째 주제의 비중이 크다. 시인 아므르 이븐 쿨숨이 자신의 타글립 부족에 대한 자랑을 과도하게 한 데 반해 알하리스는 먼저 왕의 위엄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써서 정치적으로 왕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온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 문둥병자로 알려진 - 그는 무알라까에서 자기 부족의 입장을 유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치와 외교에서 권위자다운 면모를 보여준다(*Ibid.*, p. 262; ديوان الحارث, 1991: 15). 그의 무알라까에는 인간의 생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부족에 관련된 현실 문제에 충실한 모습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집단 내에서 현자 시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통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여겨진다.

## 2.2. 유형별 분석

『무알라까트』의 시인들은 연령 면에서 청년·중장년·노년층에 걸쳐 다양하며 지식 수준과 인생연륜에 따라 각자의 무알라까에서 저마다의 특징 있는 사고와 정서, 사건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등을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시인들의 연령이나 사생관 주제와 관련해 『무알라까트』의 작품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루어 보겠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7편의 무알라까트 전체를 대상으로 죽음의 운명에 관한 모티프를 고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먼저 청년 시기에 쓰여진 것임이 확인한 작품을 보자. 그것은 이므룰 까이스, 파라파, 안타라의 작품이다. 이므룰 까이스와 안타라의 작품은 젊은 시절에 쓰여진 것임이 분명할 정도로 청년의 연애 감정이 들어 있

으며 애인에 대한 그리움과 고민의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두 사람의 연애는 차이가 있다. 왕자인 이므를 까이스가 여유 속에 연애를 즐기는 반면, 노예 신분의 안타라는 자신의 생의 목표이자 존재 확인의 길로서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따라파의 무알라까에는 현실의 삶 속에서 불안과 불만을 가진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을 하나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무알라까에는 공통적으로 청춘 시기에 품을 수 있는 미래에의 욕망 - 가령, 성애의 욕구, 사회적 위상 확보를 위한 욕망 - 이나 자신감, 활력이 들어 있다. 술 마시는 것(따라파, 안타라), 연애나 관능적 쾌락에 열중하는 것(이므를 까이스, 따라파, 안타라), 들짐승을 사냥하는 것(이므를 까이스), 전투에서 싸우는 모습(따라파, 안타라), 힘 세고 멋진 말이나 낙타 묘사(이므를 까이스, 따라파, 안타라) 등은 청춘의 활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젊은 그들은 삶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이에 충실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다만 따라파의 경우 다른 두 시인과 차이 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릴 적부터 고생한 탓에 삶과 죽음의 진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파는 “삶이란 매일 줄어드는 보물과 같아”(따라파의 무알라까, 66행<sup>9)</sup>)라고 말했듯, 죽음의 운명을 인정하면서 청춘 시기를 후회 없이 보내려는 의욕을 내보인다. 그 외에도 이 젊은 시인들은 시에서 각자의 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자신이 속한 부족의 존재가 가장 우선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노년의 인생경험과 지적 성찰이 묻어난 경우는 주하이르, 라비드를 들 수 있다. 두 시인 모두 장수했고 고매한 성품과 지적 태도를 지녔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며, 이 점은 그들의 무알라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주하이르의 경우, “나는 보았다. 야맹증 낙타가 아무데나 짓밟고 다니듯 죽음이 제멋대로 구는 것을/ 죽음의 표적이 된 자는 죽고,

9) 이후 각 시인의 무알라까에서 인용한 시행에 대해서는 ‘~의 무알라까’는 생략하고 행 번호만 명기한다.

표적에서 벗어난 자는 오래 살아 노년에 이른다//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태도를 갖지 않은 자는/ 송곳니에 물리고 낙타 발굽에 짓밟히듯 수모를 겪게 되지”(48-49행)의 구절 등을 통해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는 동안 서로 도움을 주자고 말한다. 그가 부족 간에 무의미한 전쟁을 우려하고 평화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낸 것도 풍부한 연륜과 성찰의 결과, 죽음의 운명 가운데에서도 인간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자의 태도이다. 라비드도 무알라까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당나귀나 암컷 들소 같은 동물의 생존 과정 묘사(25-52행)나 “죽음의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으니”(39행), “그들은 하나의 씨족과 같아서 시기심이 상부상조를 저해하는 것을 싫어하고”(87행) 등의 표현에서 죽음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 생존하도록 노력하되 가능한 한 부족을 위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관대하게 살아가자는 삶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 두 원로 시인의 사생관은 오랜 성찰을 통해 도달한 죽음에 대한 실존주의적 깨달음과 더불어, 현재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두 시인 아므르 이븐 쿨숨과 알하리스의 경우, 그들이 동일한 사건에 관여된 상태에서 그들의 무알라까가 씌어졌다는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전술한 바처럼, 둘은 부족 간 분쟁 사건에서 자기 부족을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무알라까를 쓰게 되었다. 따라서 두 작품에는 두 부족 간 분쟁사건과 관련된 자기 측 옹호와 상대 측 비난에 관한 내용이 많이 할애되었다. 알하리스의 무알라까는 정치적 의도 하에 지어진 것이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별도로 고찰한 구절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아므르의 무알라까에는 화자가 술을 마시며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8행)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고뇌하는 장면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두 시인이 작품

에서 보여주는 자기 부족에 충실한 자세와 적 부족에 대한 비난, 부족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타국의 왕에 대한 칭송 등을 통해 당시 부족 존립의 중요성과 더불어 부족 내 일원으로서 시인이 부족의 생존을 위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곧 부족 구성원의 삶은 부족 집단이라는 공동 운명체가 있어 가능했기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족의 존립 여부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부족을 위한 일에 헌신적으로 임하였다.

이상에서 보건대, 잔흔 서두를 제외하면, 죽음의 문제와 직접 관련해서는 파라파, 주하이르, 라비드, 아르르가 고뇌한 흔적이 뚜렷하다. 본고의 논의만으로 나머지 3인의 시인들이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그들 또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무알라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을 제시하거나 암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7인의 작품에서 모두 부족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부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가 발견되는데 이 점은 자힐리야 시대의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구성원들에게 있어 부족 집단은 곧 그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것으로, 각 개인의 삶은 부족의 존속 없이 불가능했기에 그들은 모두 부족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부족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다. 부족 유대감은 부족원 모두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그 어떤 종교적 의례보다 숭고하게 여겨졌다(شوقي ضيف, 1961: 61). 곧 부족과 개인은 일체였으며, 이 점과 관련해 자힐리야 시인 두라이드 이븐 알심마는 “나는 가지야 씨족 사람일 뿐. 씨족이 방황하면/ 나도 방황하고 씨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지”(Ibid.; مصعب حسن الراوي, 1989: 14)라고 설파했다. 무알라카트에서 이러한 부족 유대감은 강하게 드러나며 이는 자힐리야 인들이 죽음의 운명을 기다리면서도 그 고통을 잠시 잊고 삶에 애착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7편 전체에서의 ‘죽음의 운명’ 모티프

#### 3.1. 죽음에 대한 시인들의 언급

본 절에서는 『무알라카트』에서 시인들이 죽음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에 관련된 모티프를 다룬다. 이 모티프는 그들이 죽음과 관련해 인생 경험에서 또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지하는 바를 피력하거나 견해를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전술한 바대로 이는 7인 중 파라파, 주하이르, 라비드, 아므르 4인의 작품에서 보인다.

파라파는 손에 재물이 있기만 하면 유흥으로 탕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를 부족 사람들은 외면하고 친척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신을 변명하면서 인간의 죽을 운명에 대해 말한다.

내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바에야

차라리 가진 재물을 모두 써버리며 죽음에 맞서자(56행)

\*

내가 보건대, 베풀지 않고 돈 아끼던 구두쇠나

홍청망청 돈 써대며 제멋대로 살던 한량이나 그 무덤은 똑같은  
구두쇠와 활수했던 자, 두 사람의 흙 무덤을 보니

둘 다 그 위에는 단단하고 널찍한 돌이 가지런히 놓여 있구나

내가 보건대, 죽음은 돈을 써대는 활수한 자들이나

값비싼 재물을 지독히 아끼려 드는 구두쇠를 가리지 않고 닦쳐오네

내가 보기에, 삶이란 매일 줄어드는 보물과 같다

흐르는 세월 속에 줄어드는 것은 결국 소멸되고 말지

분명코, 죽음의 실수로 청년의 목숨이 연장되더라도

가축의 늘어진 끈이 주인 손에 들려 있듯 청년의 운명은 죽음에  
들려있지(63-67행)



한량으로 지내는 파라파가 보기에 재물은 향락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재물을 모으려고만 하는 구두쇠는 삶을 알지 못하는 한심한 자이다. 죽음은 재산의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매우 공평한 것으로, 재물로써 그러한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그는 간파한다. 또한 사람들 저마다 수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인이 가축의 끈을 잡고 있듯 죽음은 모든 사람과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날로 줄어드는 보물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 인간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어 결국 소멸이라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삶의 유한함과 더불어 인간에게 지워진 죽음의 운명을 당당히 인정하는 실존주의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인간에게 불가피한 죽음을 두려워 말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실존의 이 순간이다. 재물을 아끼지 말고 지금 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운명에 맞서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그는 전하고 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 부조리임에 분명하지만 참 실존의 모습은 결코 죽음을 부정,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 하지 않고 과감히 직면하는데(변종민, 2004: 46-47), 파라파의 태도는 그러한 참 실존에 닮아있다.

주하이르는 자신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교훈과 충고를 남기는 가운데 죽음과 관련해 경험하고 성찰한 바를 제시한다. 인생을 달관한, 노년에 이른 현자의 깊이 있는 통찰과 유머 넘치는 비유가 돋보인다.

나는 고된 인생살이에 신물이 났는데  
 아무튼, 팔십 년을 사는 자는 지겨울 게야  
 나는 오늘의 일과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알지만  
 내일의 일에 대해서는 장님마냥 알지 못하지  
 나는 야맹증 낙타가 아무데나 짓밟고 다니듯 죽음이 제멋대로 구는 것

을 보았다

죽음의 표적이 된 자는 죽고, 표적에서 벗어난 자는 오래 살아 노  
년에 이른다(46-48행)

\*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한다

죽음을 피하려 사다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려 할지라도(53행)

이 시에서 화자는 인간 수명의 한계까지 장수하고 있는 노인이다. 이  
제 그는 지나온 80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오래 사는 게 지켜워  
지기까지 한다. 이제 그는 곧 자신에게도 죽음이 올 것을 감지하면서 지  
난 경험을 통해 죽음의 속성에 대해 비유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주하이  
르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들의 죽음의 양상도 제  
각기 달랐음도 알고 있다. 그들 중에는 운이 없어 일찍이 단명한 자가  
있고 운이 닳아 제 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에 예고 없이 들이  
닥치는 죽음을 밤눈이 어두운 낙타가 마구 땅을 밟고 다니는 것으로, 또  
한 인간 수명의 장단을 화살 표적이 되어 운 나쁘게 맞거나 그나마 운이  
좋아 화살을 피한 것에 비유한 것은 탁월하다. 결국 죽는 시점은 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뿐이며, 어느 순간 각자에게 닥쳐올 죽음은 인간의  
의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순순히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이다. 앞서 따라파가 젊은 시절, 재물과 관련 지어 인생의 가치와 죽음을  
생각했다면 주하이르는 오랜 삶의 경험에 비추어 죽음을 관조한다.

라비드의 무알라까에서는 두 군데에서 죽음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하  
나는, 들소 새끼가 늑대에게 죽임을 당한 장면(36-39행)에서이고, 다른  
하나의 화자가 애인에게 자신의 결단력을 말하는 부분(53-56행)에서이다.  
시행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늑대들은 암컷 들소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새끼를 잡았다

죽음의 화살은 빛나가는 법이 없으니(39행)

\*

나와르는 모르고 있었던가

나야말로 마음 먹은 사람과 애정의 끈을 연결할 수도, 끊을 수도  
있는 자임을

나는 머물던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죽음의 운명이 내 영혼을 붙들 때만 그곳을 떠나는 자이다  
(55-56행)

첫 장면에서 라비드는 자연에서 동물들의 생태를 통해 죽음의 근본 속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와 우화에서 늑대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 등과 같이 자기보다 약한 것들에 대해 사정없이 자기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아지자, 1990: 227). 약점을 보일 경우 어김없이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늑대같이 무자비한 죽음은 방심하고 있는 인간에게 닥쳐온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언제 육식 동물에게 당할지 모를 나약한 새끼 들소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는 육식 동물인 늑대 이미지를 통해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에 대한 심리상의 공포심이 나타난다. 둘째 장면에서 라비드는 자신의 강한 결단력을 말하는 가운데 죽음의 운명은 의지로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죽음을 영혼(نفس)과 연관시킨 부분이다. 자힐리야 시대 사람들은 정령 신앙(الروحانية)을 갖기도 했으며, 인간이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은 일종의 부엉이 같은 새가 되어 그의 무덤 주위에 머문다고 상상하였던 바<sup>10)</sup>, 라

10) 또한 자힐리야 시대 아랍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인 그 새가 폐가나 무덤, 사람들이 피살된 장소에 머문다고 믿었고, 더 나아가 그 새가 망자의 자식이나 남은 가족 곁에서 지내면서 그가 죽고 난 뒤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아내어 망자에게 소식을 전해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살해당한 자의 경우,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수컷 부엉이(هامة)가 되어 그의 무덤에서 소리 내어 울면서 “내게 마실 물을 줘(استقوني). 내게 마실 물을 줘”라고 말하며, 그러다가 복수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날아가 버린다고 믿기도 했다.

برهان الدين دلو، جزيرة العرب قبل الإسلام، ص 533-532.

비드의 이 시행은 영혼이 신체를 떠나는 것을 죽음으로 보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와 대립되는 영혼의 이탈 작용을 암시하여 죽음(임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 언급한 점은 『무알라카트』 전체에서 유일하게 라비드의 이 시행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운명의 굴레로서의 죽음에 대해 다른 시인들이 심리상의 깊은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비유의 방식으로 죽음을 묘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므르는 활력과 불굴의 정신이 넘쳤던 시인답게 술을 들이키면서 직관적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운명 지워져 있음을 깨닫는다. 『무알라카트』의 시인 7인 중 5인에 달하는 시인들이 잔흔 주제를 작품 서두에 놓은 데 반해 아므르는 서두에서 술 마시는 장면(1-8행)을 설정했음도 특이하다.

나는 바울라박에서 많은 술잔을 들이켰고,  
 다마스쿠스와 까시리나에서도 술을 많이 마셨네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다를 것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7-8행)

술은 의식을 마취시켜 마신 자와 현실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그 자로 하여금 의식 세계에서 알 수 없는 진리와 비밀을 감지하게 한다. 죽음은 인간의 지각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 사람은 술의 취기 속에서 인간 생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기도 한다. 이 시행에서 아므르는 가는 곳마다 술을 마시며 즐기는 한량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진의를 본다면 그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시인이 감지하는 생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 앞에서 부르짖는 유한한 인간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김능우, 2004: 70).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있었으며 결국 ‘죽음은 인간의 운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매우 평범하고 단순해 보

이는 진리이지만 그 어떤 사상에 영향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기도 하다. 다른 무알라까들에서 잔흔 모티프 서두가 인간의 생사에 관한 진리를 함의하듯이, 아므르의 무알라까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그린 서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잔흔 서두에서 시인이 폐허가 된 옛 집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운명을 슬퍼한다면, 아므르 또한 술을 마시며 언젠가 삶이 끝나게 됨을 직감하고는 슬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4인의 무알라까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자. 먼저 죽음을 인간이나 동물 등의 생명체에 비유해 그 속성을 살펴보면, 그것은 ‘공평함’(따라파), ‘우발성’(주하이르), ‘무자비함’(라비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죽음은 ‘만인에게 다가오는 것으로서 예측 불가능한 것이며,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만인이 겪어야 할 죽음은 곧 모든 인간에게 지워진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것으로, 이 점은 4인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따라파의 경우 ‘결국 소멸할’ 유한하면서 허무한 삶을 인정하면서 강인한 의지를 갖고 불가피한 죽음에 맞서려는 자세를 통해 실존주의 철학에 근접한 사고를 보여준다. 또한 라비드는 ‘죽음은 영혼을 앗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적 원리를 염두에 두고 죽음을 궁구하려 한 흔적이 엿보이며, 이는 『무알라까트』의 다른 시인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 3.2. ‘잔흔(殘痕) 서두’와 삶의 소멸

『무알라까트』에서 아므르와 알하리스의 무알라까<sup>11)</sup>를 제외한 나머지

11) 아므르의 무알라까의 서두는 전술한 바처럼 술 마시는 장면과 애인과의 이별 장면이고, 알하리스의 무알라까의 서두는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하는 장면이다. 이 두 서두는 잔흔 서두와 소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취기 속에 죽음의 운명을 토로하거나, 애인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표현한 점에서 잔흔 서두가 함의하는 바에 근접한

5개 작품들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심도 있게 보여주는 모티프 중에는 ‘삶의 잔흔 서두’(المقدمة الطللية, 딸랄 서두)<sup>12)</sup>가 있다. 아랍어로 ‘딸랄’(طلال)은 아랍 유목민들이 이동하다가 머물렀던 곳에 남은 생활의 자취들, 가령 옛 집터에 해당하는 바닥에 천막을 쳤던 흔적, 불을 때는 데 사용했던 돌, 물막이 도랑, 가축의 배설물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개 이 잔흔 서두에서 시인은 오래 전에 그의 일족이 머물렀던 곳을 지나가면서 이전 생활의 자취들을 보며 회한에 젖고, 또한 당시에 사귀었으나 결국 헤어졌던 여자 애인을 추억하며 큰 슬픔에 잠긴다. 잔흔 서두에서 시인들은 저마다 개성 있는 묘사 기법을 사용하지만 삶의 흔적이라는 기본 모티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잔흔 서두의 목적, 의미, 상징성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금을 통해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다.<sup>13)</sup> 논자가 보기에 이 서두는, 이븐 꾸타 이바나 유수프 쿨라이프가 언급한 바처럼 한곳에 정착해 살지 않고 물이나 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사는 아랍 유목민의 생활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김능우, 2004: 60-63). 또한 이 서두에서, 시인이 이전에 머물렀던 생활 터전의 흔적을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지나갈 때 느끼는 회한의 감정은 애조를 띤 분위기를 자아내며, 생명력이 가득하다가 이제는 황량해진

---

범주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본고에서는 ‘잔흔 서두’로 줄여 사용하기로 한다.

13) 논자의 연구와 자료 조사에 따르면, 잔흔 서두에 관한 아랍과 서구 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후사인 아뜨완(حسين عطوان)의 저서 *متنمة التصيدة العربية في العصر في العصور*(دار الجبل، بيروت، 1987)이다. 이 책은 이븐 꾸타 이바, 유수프 쿨라이프, 팔터 브라운, 잇즈 알딘 이스마일의 연구를 소개·비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능우가 이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말로 정리하여 『자힐리야 시 서두의 비밀: ‘삶의 잔흔’과 ‘사랑’의 모티프』(『아랍시의 세계』, 명지출판사, 2004)에서 소개하고 부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랍 학자 유수프 알유수프는 저서 *مقالات في لشعر الجاهلي*(자힐리야 시 논집(論集))(بيروت، دار الحنلق، 1985)에서 후사인 아뜨완이 다룬 상기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집터의 이미지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의 삶이나 존재의 문제를 연상시킨다.

잔흔 서두를 포함하는 『무알라카트』 내 5개 작품의 서두는 다음과 같다.

친구여, 멈추게. 알다쿨과 하우말 사이의  
 구불구불한 모래터 한 칸에 있는 옛 집과 애인을 회상하며 울어나  
 보세  
 투디하, 알미끄라 사이에 있는 옛 집터 흔적은 남풍 북풍이  
 마치 천을 짜듯 번갈아 불어와 지워지지 않았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넓은 옛 집터에 흩어져 있는,  
 후추 알갱이 같은 흰 영양(羚羊)들의 분(糞)  
 나는 그녀의 일행이 떠나던 날 아침 홀로 동네의 가시나무 숲에서,  
 정향(丁香) 껍질을 벗기며 눈물짓는 자처럼 눈물을 흘렸었다  
 집터에서 동행자들은 나를 위해 낙타를 멈춰 세우고,  
 “너무 슬퍼 말게. 참아”라고 말하지만  
 내 슬픔을 치유해 주는 것은 흐르는 눈물뿐  
 지워진 옛 집터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없구나(이므를 까이스,  
 1-6행)

\*\*

카울라가 살던 사흐마드의 잔돌 섞인 집터,  
 손등에 새긴 문신처럼 흰히 드러나네  
 동행한 벗들은 타던 말을 멈춰 세우고 나를 위로한다  
 “너무 애달파 말게, 견뎌내야지”  
 애별(哀別)하던 새벽녘 다드의 넓은 와디를 지나는  
 말리키 부족의 낙타 무리는 마치 선단(船團) 같구나(따라과, 1-3행)

\*\*

하우마나 알다라즈와 알무타살림의  
 묵묵부답인 집터가 애인 움무 아우파가 살던 곳이 맞는가?  
 두 화산암 지대에 있는 그녀의 집터  
 그것은 손목의 혈관에 새롭게 그려진 문신 같구나

집터에는 눈이 큰 들소와 영양들이 떼지어 다니고  
새끼들은 젖을 먹으려 웅크리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이십 년이 지난 뒤 그녀가 살던 집터 위에 섰고,  
온갖 추측을 한 끝에 가까스로 집터를 알아보았다  
집터에는 요리할 냄비를 올려놓던 돌들과  
아직 다 허물어지지 않은, 웅덩이 모양의 물길이가 보인다  
나는 집터를 알아보고는 인사말을 건넸다  
“집터여, 아침을 맞아 평안하길!”  
잘 보라, 벗이여. 보이는가?  
여자들을 태운 낙타 가마들이 고지(高地)의 샐터에서 내려와 떠나  
가던 모습이다(주하이르, 1-7행)

\*\*

잠시 머물거나 오래 거주하던 미나 지역 집들의 흔적은 지워졌고,  
집들이 있던 가을 산과 리잠 산은 황량해졌구나  
라이얀 산과 물 흐르던 구릉도 황량해졌고 집들의 자취는 남은 채  
드러났는데,  
그것은 마치 바위에 쓰여 남겨진 글씨 같다  
그 집터에 사람이 살았던 이후 꼬박 여러 해가 지났고,  
할랄과 하람의 여러 달도 지났다  
집터는 봄의 태풍이 동반한 비가 내려 풀로 뒤덮였고,  
천둥을 동반한 구름이 내려주는, 반가운 큰 비나 가랑비가  
내리기도 했다  
밤비를 내리는 구름, 하늘을 뒤덮은 채 새벽녘에 비를 내리는 구름,  
요란한 천둥소리를 내며 저녁에 비를 내리는 구름  
집터에는 야생 양갓냉이의 가지가 높이 자라났고  
와디의 양쪽에는 영양들과 타조들이 새끼와 알을 낳았다  
집터에는 눈이 큰 들소들이 새끼를 돌보며 살고 있고  
어린 새끼들은 어느덧 벌판에서 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큰물이 집터를 덮었던 흙을 씻어냈는데, 그것은 마치  
연필로 내용이 새로 쓰여진 책 같구나



또한 그 집터는 여자 문신사(師)가 새로 그린 문신,  
    빵은 돌가루를 둥근 모양으로 뿌려 표면 위로 드러나는 문신 같구나  
나는 멈춰 서서 집터에게 소식을 묻지만,  
    질문은 아무 소용도 없고, 집터는 단단한 바위 마냥 아무 말이 없  
    구나  
한때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빈 상태의 집터  
    그들이 아침 일찍 떠나간 뒤 그곳엔 도랑과 천막용 나뭇가지들만  
    남겨졌다  
여자들이 무리 지어 삐걱거리는 가마 안으로 들어가고,  
    짐을 실은 낙타 가마가 마을을 떠날 때 너는 그리움에 사무쳤다  
(라비드, 1-12행)

\*\*

나에 앞선 시인들은 내가 새롭게 시작(詩作)할 여지를 남겨주었는가?  
    아니면 너는 어림짐작 끝에 애인의 옛 집터를 알아보았는가?  
알자와 지역에 있는 아블라의 집터여,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다오  
    아블라의 집터여, 아침 인사를 전하노라, 평안을 비노라  
나는 옛 집터에 머무는 자가 늘 하는 일을 하기 위해  
    궁궐처럼 큰 암낙타를 집터에 멈춰 서게 했다  
아블라의 가족은 알자와에 머물고, 우리 가족은  
    알하즌, 알삼만, 알무타살람 지역에 머문다  
옛 거주지가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소식을 전했다  
    살던 사람들을 본 지 오래고, 움물 하이삼이 떠난 후  
    황량해졌다고(안타라, 1-5행)

논자는 이러한 잔흔 서두야말로 자힐리아 시대 아랍인들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아랍인의 유목 생활 환경에서 찾아낸 소재나 이미지들을 이용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심미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 서두는 인간의 죽을 운명을 인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슬퍼

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시인들의 이러한 심정은 몇 가지 주요 모티프들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는 ‘흔적’이다. 흔적은 그 실체가 이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즉 흔적은 시간의 경과를 거쳐 남은 앞선 실체의 증거일 뿐이다. 원형비평에서 희극적 비전과 비극적 비전의 유형을 구분할 때 세워진 건물은 전자에 속하지만 ‘옛 집터의 흔적’ 같은 폐허는 후자에 속하며, 자연의 주기를 근거로 하는 신화의 측면에서 볼 때 ‘옛 집터의 흔적’은 어두운 밤이며 겨울이고 생명 소멸의 단계에 해당하는 원형으로 보인다(노스롭 프라이, 1998: 156-164). 따라서 세월의 지남을 전제로 하는 흔적은 소멸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알라까의 잔흔 서두에는 이전에 있던 집터나 천막의 흔적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사용됨으로써 흐르는 세월 속에 죽음을 맞게 되는 인간 삶을 암시하고 있다. 예로서 이므를 까이스는 “옛 집터 흔적은 남풍, 북풍이/ 마치 천을 찢듯 번갈아 불어와 지워지지 않았구나”(2행), “옛 집터에 흩어져 있는/ 후추 알갱이 같은 흰 영양들의 분(糞)”(3행)에서 삶의 흔적을 그려낸다. 따라파와 주하이르, 라비드 세 시인은 공통적으로 땅바닥에 아련히 보이는 옛 집터의 흔적을 신체에 새겨진 문신에 비유한다. 그 외에도 흔적을 나타내는 이미지들로는, 집터에 남겨진 ‘냄비를 올려놓던 돌들’, ‘웅덩이 모양의 물길’(주하이르), ‘바위에 쓰여 남겨진 글씨’나 ‘연필로 새로 쓰여진 책’ 같은 집터의 흔적, 집터에 남은 ‘도랑과 천막용 나뭇가지들’(라비드) 등이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자기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도할수록 심해진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은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져 공포의 강도는 커지고, 결국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심적 외상(心的外傷, le traumatisme)을 입게 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91). 생명력이 사라진 옛 집터의

이미지는 마치 고인이 된 가까운 사람의 시신을 보는 듯, 아랍 유목민에게 삶의 소멸을 눈으로 보여주며 그들이 맞이할 죽음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공허(空虛, emptiness)’이다. 공허, 텅 빈은 존재나 사물의 부정적 양상을 의미하여 문학에서 대체로 무한과 대비되는 허무를 상징한다(이승훈, 2009: 60-61). 잔흔 서두에서 이전에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 뒤에 텅 비게 된 장소는 삶의 공허함, 즉 허무라는 추상적 의미로 심화된다. 무알라카트 시인들은 옛 집터에 멈춰 서서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아 황량하게 되었음과, 사람들 대신 동물의 서식지로 변해버린 것, 침묵만이 짙게 드리운 집터 이미지를 통해 삶의 무상을 표현한다. 이와 관련해 라비드는 “집들이 있던 가울 산과 리잠 산은 황량해졌구나”(1행), “나는 멈춰 서서 집터에게 소식을 묻지만,/ 질문은 아무 소용도 없고, 집터는 단단한 바위 마냥 아무 말이 없구나// 한때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빈 상태의 집터”(10-11행)라고 말하며 적막감을 드러낸다. 주하이르는 옛 집터에 사람은 없고 들소와 영양 떼(3행)가, 라비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더불어 영양과 타조, 들소들이 사는 장면(6-7행) 같은 황폐함의 이미지를 통해 번성과 생명은 결국 쇠락과 죽음을 맞게 됨을 상기시킨다.

셋째는 ‘이별’이다. 인간 삶의 과정에서 ‘만남’에 대비되는 이별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서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 지워진 운명적 이별이라면 그 불행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이별은 이승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특히 남녀 간의 이별은 사랑의 단절을 통한 생명력의 상실, 파멸, 죽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띤다. 무알라카트의 잔흔 서두에서 7인의 시인들은 모두 이전에 애인과 이별하던 장면을 떠올린다. 그 이별 장면은 주로 애인을 포함한 여자들을 태운 낙타 무리가 떠나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각 작품에서 이별 장면은 “나는 그녀의 일행이 떠나던 날 아침”(이므룰 까이스), “애별(哀別)하던 새벽녘 다드의 넓은

와디를 지나는/ 말리키 부족의 낙타무리”(따라파), “여자들을 태운 낙타가마들이 고지(高地)의 샘터에서 내려와 떠나가던 모습이”(주하이르), “여자들이 무리 지어 삐걱거리는 가마 안으로 들어가고/ 짐을 실은 낙타가마가 마을을 떠날 때 너는 그리움에 사무쳤다”(라비드), “낙타가마를 탄 여인이여, 헤어지기 전에 멈춰주오”(아므르), “움물 하이삼이 떠난 후 황량해졌다고”(안타라), “아스마는 우리와 이별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알하리스)의 시행에 나타난다. 인생의 절정은 청춘 시기이며 그것은 남녀 간 연애로 절정을 이룬다. 원형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성취는 생산,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지만 반면에 남녀의 이별로 인한 사랑의 실패는 불모의 대지, 즉 결실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중국에는 사멸을 뜻한다. 서두에서 시인이 의도하는 연애는 결실을 맺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이며, 그것은 곧 죽음의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비극적인 인간 존재를 의미한다.

넷째는 ‘슬픔’이다. 인간에게 슬픔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헤어짐이나 죽음 같은 상황을 맞거나 감지해서 느끼는 슬픔의 감정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는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극도의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즉 소멸됨의 운명에 어쩔 수없이 승복해야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해 시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극도의 절망감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므룰 까이스는 옛집터에서 슬픔에 잠긴 자신을 위로하는 동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 슬픔을 치유해주는 것은 흐르는 눈물뿐”(6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알하리스는 “여러 곳에서 만났던 그녀를 이제는 볼 수가 없어/ 울음은 아무 소용 없지만 오늘 나는 정신을 잃고 울고 있네”(5행)라며 애인과의 이별에서 오는 삶의 상실감을 표현한다.

이상에서 보듯 잔흔 서두는 아랍 유목사회를 반영하는 소재들을 통해 인간 삶의 절정기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반추해보고, 생사의 의미를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모티프이다. 이 서두는 무

알라까트를 포함하는 많은 자힐리야 시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안타라는 자신의 무알라까 서두에서 “나에 앞선 시인들은 내가 새롭게 시작(詩作)할 여지를 남겨주었는가?”(1행), “나는 옛 집터에 머무는 자가 늘 하는 일을 하기 위해/ 궁궐처럼 큰 암낙타를 집터에 멈춰 서게 했다”(3행)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기존의 시작 방식을 따라 서두에서 옛 집터를 말한다고 솔직히 밝히기까지 한다. 이 점은 잔흔 서두가 - 이슬람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 당시 아랍인이 가장 중요시한 사고의 일면인 죽음의 운명을 반영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 당시 시인들은 잔흔 서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은, 즉 각각의 방식으로 이 유형의 서두를 두어야만 제대로 된 시작품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은 서두에서 하나의 의식(儀式)처럼 옛 집터에 대해 애상조로 읊으면서 삶의 소멸을 슬퍼한다.

논자는 자힐리야 시인들이 잔흔 서두를 그토록 중요시한 요인은 바로, 삶을 소멸로 이끄는 세월의 힘에 대한 성찰이야말로 시인이려면 누구든 해보아야 했고, 그것을 통해 시를 감상하는 청자들로 하여금 회한에 잠기게 하고 인생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의 실존철학자나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과 형성하게 되는 관계와,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죽음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실존철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는 죽음이 있는 곳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 용기 있게 죽음에 대처하라고 가르친다(장 폴 사르트르, 2004: 13-15). 많은 자힐리야 시인들이 시 서두에서 공통적으로 죽음의 운명을 애절한 어조로 명징하게 그려냈음은 부족 내 정신적 선도자로서 자신의 시를 듣는 부족원 청자들과 더불어 죽음의 진리를 함께 깨닫고 - 부족 공동체를 위해 -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권유하는 적극적인 실존주의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 결론

본고는 『무알라까트』의 7편 작품을 대상으로 그 안에 나타난 죽음에 관련된 사고나 묘사, 이미지 등의 모티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본론 2장은 죽음의 모티프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3장을 위해 필요한 도입부로 각 시인과 각 무알라까 작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무알라까의 구성을 분석하였고 이어 시인들의 성향이나 작품주제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묶어 분류하여 사생관과 관련해 살펴보았다. 3장은 7편의 무알라까 전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모티프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본론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시인의 생애를 고려해 살펴볼 때 각 작품은 시인 각자의 성격과 처한 환경, 몸소 겪은 중요 사건 등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무알라까는 형식상 다주제 구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자힐리야 까시다로서 작품들은 잔흔 서두를 포함해 3개~6개의 주제들을 갖고 있다. 잔흔 서두는 죽음의 모티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술 장면이나 이별 장면으로 잔흔 서두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 아므르와 알하리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의 시인들이 잔흔 서두를 통해 죽음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서두 이후 시의 본문에서 다시 죽음에 관해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따라파, 주하이르, 라비드의 작품이다. 이 세 명의 시인은 모두 오랜 인생 연륜(주하이르, 라비드)이나 역경(따라파)을 통해 생사에 대해 경험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죽음에 관한 나름대로의 주관을 지녔던 자들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무알라까 시인들의 죽음에 대한 사고를 가장 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잔흔 서두이다. 그들은 옛 집터에 대한 묘사나 그곳에서의 느낌을 서두에 담아냈는데, 아득히 삶의 자취만 남은 장면은 그 실체를 알 길이 없는 불확실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이끌어낸다. 주검

을 바라보듯 시인들은 생명이 사라진 텅 빈 집터를 보면서 심적 외상에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죽음의 운명을 감지하려 하였다. 시인은 홀로 황량한 집터에 서서 삶의 소멸을 목격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미리 간접 경험하고 그 슬픔을 청중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청자들은 흥중에 자리잡은, 죽음의 운명으로 인한 단말마의 고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 서두에 죽음을 떠올리는 옛 집터 장면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중요했고 청자들의 심중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당시 사람들은 죽음을 가져오는 세월의 힘에 대한 경외심을 지녔고, 그러면서 유한한 삶을 깨닫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늘 잊지 않았으며, 시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낭송할 때에도 그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려 했던 것이다.

잔흔 서두에서의 죽음의 운명에 대한 수공의 태도는 따라파, 주하이르, 라비드의 무알라카 본문과 아므르의 술 마시는 장면 서두에서 구체적인 언사나 비유 등의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그 표현들은 한마디로 ‘죽음은 만인이 겪을 불가피한 운명’으로 요약되며, 죽음에 대해 실감나는 이미지들(흙무덤, 야맹증 낙타, 늑대)을 통해 ‘공평함’(따라파), ‘우발성’(주하이르), ‘무자비함’(라비드) 등으로 그 속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한편, 아므르의 무알라카에서 술 마시는 장면 서두는 술의 취기에 힘입어 직관적으로 죽음의 운명을 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잔흔 서두가 지니는 함의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고는 『무알라카트』에서 죽음에 대한 사고와 표현을 알아 보았다. 그 사고는 대체로 운명론적이어서 그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정조를 띠었다. 그렇다면 무알라카트에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논자는 본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각 무알라카의 형식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생동감 있는 삶의 모

습을 개략적으로 일별할 수 있었다. 서두에 이어 시인은 활기찬 생활로 돌아오고 특히 부족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삶의 의욕이 충만하다. 이는 그들이 항상 죽음의 운명에만 얽매인 채 삶을 포기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인간 개인은 혼자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 집단 내에서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된다. 『무알라카트』의 작품에는 죽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것을 잊으려는 삶의 투쟁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다룬 본고에 이어 차기 연구에서는 『무알라카트』의 작품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다룰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김능우(2004a), 『이슬람 이전 시대의 시성 이브를 카이스의 무알라카』, 『아랍시의 세계』, 명지출판사.
- \_\_\_\_\_ (2004b), 『자힐리야 시 서두의 비밀: ‘삶의 잔흔’과 ‘사랑’의 모티프』, 『아랍시의 세계』, 명지출판사.
- \_\_\_\_\_ (2010), 『자힐리야 시의 전승(傳承)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3, 한국중동학회.
- 변종민(2004), 『존 업다이크의 실존주의 문학세계』, 태학사.
- 이영희(2007), 『삶 죽음 의식』, 백산서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1995), 『삶 그리고 죽음』, 대한교과서(주).
-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1990),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 주제 어 사전』, 청하.
- 장 폴 사르트르 外(2004), 정동호·이인석·김광운 편, 『죽음의 철학』, 청람.
- 이승훈(2009),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 노스롭 프라이, 이상우 역(1998), 『문학의 원형』, 명지대학교출판부.

- ابن منظور، لسان العرب، الطبعة الأولى، دار صادر، بيروت، لبنان.
- أبو العباس ثعلب، شرح ديوان زهير بن أبي سلمى، (قدم له ووضع هوامشه وفهارسه حنا نصر الحتي)، الطبعة الثانية، دار الكتاب العربي، بيروت، لبنان، 1995.
- الأنباري (أبو بكر محمد بن القاسم)، شرح القصائد السبع الطوال الجاهليات، تحقيق وتعليق عبد السلام محمد هارون، الطبعة السادسة، دار المعارف، القاهرة.
- برهان الدين دلو، جزيرة العرب قبل الإسلام - التاريخ الاقتصادي الاجتماعي الثقافي والسياسي، الطبعة الثالثة، دار الفارابي، بيروت، لبنان، 2007.
- التبريزي (الإمام الخطيب أبو زكريا يحيى بن علي)، شرح القصائد العشر، ضبطه وصححه عبد السلام الحوفي، دار الكتب العلمية، بيروت، لبنان، 1985.
- حسين عطوان، مقدمة القصيدة العربية في العصر الجاهلي، الطبعة الثانية، دار الجيل، بيروت، لبنان، 1987.
- حنا الفاخوري، الجامع في تاريخ الأدب العربي- الأدب القديم، دار الجيل، بيروت، لبنان، 1986.
- ديوان الحارث بن حذفة، (جمعه وحققه وشرحه إميل بديع يعقوب)، دار الكتاب العربي، بيروت، لبنان، 1991.
- ديوان لبيد بن ربيعة العامري، دار صادر، بيروت.
- الزوزني (القاضي الإمام أبو عبد الله الحسين بن أحمد بن الحسين)، شرح المعلقات العشر، منشورات دار مكتبة الحياة، بيروت، لبنان، 1989.
- شوقي ضيف، العصر الجاهلي، دار المعارف بمصر، 1961.
- الطاهر أحمد مكي، امرؤ القيس حياته وشعره، الطبعة السادسة، دار المعارف، القاهرة، 1993.
- عبد الملك مرتاض، السبع معلقات، اتحاد الكتاب العرب، 1998.
- عامر الحلواني، شعرية المعلقة: امرؤ القيس- لبيد بن ربيعة - زهير بن أبي سلمى، كلية الآداب والعلوم الإنسانية

- بصفاقس، وحدة البحث في المناهج التأويلية، 2007.  
مصعب حسون الراوي، الشعر العربي قبل الإسلام بين الانتماء القبلي والحس القومي، دار الشؤون الثقافية العامة، بغداد، 1989.  
يوسف اليوسف، مقالات في الشعر الجاهلي، الطبعة الرابعة، دار الحقائق، بيروت، لبنان، 1985.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

A Study on the Motifs of Man's Mortal Fate,  
as Represented in the *Mu'allaqāt*

Kim, Neung Woo

This research deals with some motifs including sayings, views and images portraying the mortal fate of man that are represented in *the Mu'allaqāt*(المعلقات), an anthology of seven long Arabic poems in the Jāhiliyah(pre-Islamic) era.

My contention is that the introductory parts of poems of *the Mu'allaqāt*, which together are called *atḷāl*(أطلال) ruins or traces of nomads' staying) introduction, function as very poetic ways of expressing the poets' inner thoughts and genuine emotions about the finite nature of man. The scenes and recollections from the vestiges of life as described in the *atḷāl* introduction arouse fear of doom and bewilderment in the audience. Throughout the introduction, the poets undergo an indirect experience of their imminent death and share it with the audience to relieve fear of death. The repeated usage of the introduction by poets of *the Mu'allaqāt* shows that people of the Jāhiliyah era constantly entertained the concept of impending doom and the anxiety thereof and thus realized their fated

end. The pre-Islamic Arab's recognition of the mortal nature of man, as found in the *atlāl* part of *the Mu'allaqāt*, is clearly demonstrated in other parts of poems by recurrent motifs such as concrete remarks and expressions implying man's death as an inextricable destiny. In particular, some poets tried to depict the attributes of death such as its impartiality, eventuality and mercilessness by using vivid images from the nomadic lifestyle.